

고용장관, 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강조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밝혀, 8월 중 관련 대책 발표 예정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주)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주)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주)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 작업내용과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주지하는 활동

굿스틸뱅크(주)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주)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해 작업 내용과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면서 8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2. 굿스틸뱅크(주)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활동 내용

3. 장관님 말씀자료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담당자	사무관	안영곤	(044-202-8823)
			주무관	이상백	(044-202-8825)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담당자	서기관	윤종호	(044-202-8811)
			사무관	차민경	(044-202-8812)



❖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 일 시 : '24. 7.29.(월) 10:00~11:20 (80분, 간담회 포함)
- 장 소 : 굿스틸뱅크(주) (경기도 시흥시 소재, 베트남 등 19명, 총 47명)
- 참석
 - (고용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안산지청장 등
 - (기업) 대표이사(김기석), 담당 상무, 현장 외국인 근로자(6명) 등
 - (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장 등
- 주요 내용
 - 굿스틸뱅크(주)의 **외국인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설명
 - * 각국 언어 교재 활용, 국적별 안전리더 활동, 밴드를 활용한 소통, TBM 실시 등
 -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등 관련 건의사항 청취·토의**

□ 세부일정(안)

*** 인사말씀까지 공개**

시간	내 용	비 고
09:58	2'	• 장관 현장도착 및 이동
10:00~11:00 <간담회>	60'	• 3층 회의실
	• 참석자 소개(2')	• 사회: 산재예방지원과장
	• 인사말씀(5')	• 장관
	• 사업장 소개, 우수사례 발표(10')	• 발표: 사업장 관계자
11:00~11:20 <현장 순회>	20'	• 참석자 전원
	• 외국인 근로자 참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40')	• 장관
11:20	• 마무리말씀 및 기념촬영(3')	• 동선: GATE 3 → GATE 1
	• 종료	

구분	주요 내용	
<p>안전리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외국인 4명*을 지정하여 안전리더로 임명하고 안전리더는 매월 5만원~13만원 수당 지급 * 베트남 2명, 미얀마 1명, 필리핀 1명 ■ 안전리더를 통한 외국인 신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방법 등 전담 교육 	  <p><국적별 안전리더 임명></p>
<p>번역자료 및 사이렌 활용 안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번역 교육자료, 동영상을 안전교육에 활용 ■ 현장의 CCTV에 녹화된 아차 사고 영상을 교육 시 활용 ■ 중대재해 사이렌 전파 교육 	  <p><외국인 교육 영상></p> <p><사이렌 전파></p>
<p>현장소통 및 제안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밴드)를 활용하여 제안제도 운영, 채택시 포상 ■ “칭찬/제안합시다”프로젝트, 힐링 콘서트·활력비타민, 직원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활동 	  <p><제안제도 운영></p> <p><현장 소통 활동></p>
<p>위험성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매일 안전리더 주관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TBM) 실시 ■ 근로자 면담을 통한 유해위험 요인 발굴, 아차사고 전파 	  <p><TBM 실시></p> <p><아차사고 사례></p>
<p>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담당 상무가 베트남어 등 외국어를 독학하여 소통문제 적극 해결 	

붙임 3

장관님 말씀자료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굿스틸뱅크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참여해주신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하여 총 23명의 근로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 중소제조업 사업장에 종사하며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산업재해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장 시설 개선과 같이
화재·폭발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의 핵심 사항인
위험요인의 발굴-개선-공유를
집중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굿스틸뱅크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로 위험을 개선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우수한 사업장입니다.

무엇보다, 관리자분께서 직접 외국어를 독학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는 등
내·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에서
진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
보다 현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분들의 남다른 경험과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